

세배 끝나고 온 가족 함께 박물관·고궁 나들이 어때요?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명절 연휴 귀성길.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않거나, 교통정체를 피하고 연휴를 즐기러 미리 다녀온 사람들, 또 부모님이 방문을 하는 ‘역귀상’으로 고향 갈 필요가 없어진 사람 등 다양하다. 고향방문을 해도 일찍 돌아와 하루나 이틀은 가족끼리 연휴를 즐기는 경우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명절 연휴라면 TV가 거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방콕족’이나 ‘조귀상경족’이 선택할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 다양하다. 많은 박물관, 고궁들이 설 당일만 빼고 연휴기간에 개장하고, 가족방문객을 유혹하는 테마파크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설날만 빼고 연휴기간에도 대부분 개장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다양한 콘텐츠 제공

과천, 미술관·과학관·말 테마관 등 다양
주요 테마파크, 민속놀이·가족 할인 실시



설 연휴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박물관, 고궁, 테마파크 등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평창 무이예술관, 강릉 커피커피 박물관, 논산 백제군사박물관(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자연사부터 백제군사박물관까지 다양한 테마
인기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보면 독일, 프랑스, 핀란드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방문에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학생들 단체견학 장소로 여기던 우리에게 그들의 관심과 열정은 무척 신선했다.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 미술관, 역사관이 있다. 마침 한국관광공사가 2월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한 테마도 바로 ‘미술관과 박물관 여행’이다.

서울에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가볼만하다. 2003년 문을 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생생한 디오라마와 자체제작 동영상,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입소문이 나 매년 수십만명이 찾은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곳

에서 3km 떨어진 곳에는 ‘어서와...’에서 독일인 친구들이 방문했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다. 1908년 일제가 세운 옛 경성감옥에서 출발한 서대문 형무소는 1998년부터 역사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 인근의 경기도 과천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보고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비롯해 국립과천과학관, 그리고 말에 대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렛츠런파크 서울 등이 있어 당일 나들이로 적격이다.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평창과 강릉 일대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개성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 강릉에는 커피로 유명한 높은 지역답게 커피박물관이 있다. 각국 커피의 역사와 커피농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강릉해변 인근에 2호점 ‘커피커피커피커피박물관’을 열었다.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은 음향기기의 역사와 각

국의 빈티지 오디오 기기, 그리고 발명왕 에디슨 발자취를 볼 수 있다. 60여 개국에서 수집한 명품 축음기, 오르골, 영사기 등과 에디슨의 발명품 수천 점을 전시하고 있다. 평창에는 폐교를 개조한 무이예술관이 있는데 인근 이효석문학관, 봉평장터와 묶어서 돌아보면 좋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는 황산벌 전투의 현장이다. 계백 장군이 전사한 곳으로 알려진 부적면 충곡로에는 계백장군유적 묘와 사당, 백제군사박물관, 야외 체험시설 등이 있다.

‘예향’이란 애칭이 붙는 광주의 시립미술관은 지자체가 최초로 개관한 공립 미술관으로 허백련, 오지호, 강용운 등 남도 대표 작가와 지역인물은 예술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무등산으로 가는 ‘운림동 미술관 거리’에는 국윤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의재미술관 등 미술관 등이 있다.

●롯데월드, 원마운트 등 명절 맞춤 프로그램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퍼레이드 ‘민속 한마당 : 북의 대합주’와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연 ‘풍물 한가락’, 김덕수 사물놀이의 새해 기념 만복 퍼포먼스 ‘신명’, 비보이와 사물놀이의 퓨전공연 ‘무브먼트 코리아’ 등을 진행한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메인수조에서 한복을 착용한 아쿠아리스트가 새해인사 퍼포먼스를 하고, 개미 고객 대상으로 투호놀이와 톨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양생물로 꾸민 따뜻한 명절 떡을 하루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한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는 25일까지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와 연계한 미디어아트 작품전 ‘서울스카이, 미디어아트를 새기다展(전)’을 개최한다.

경기도 일산 원마운트는 워터파크와 스노우

파크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명절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술년 개띠 해의 강아지 분장을 한 캐릭터들이 파크 입구에서 댄스 퍼포먼스와 플래시몹으로 손님을 맞는다. 매표소에서는 손금 한 돈의 선물이 들어있는 복 주머니를 여는 게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파크 내에서는 명절 민속놀이판이 벌어진다. 스노우파크 명물인 개떡매를 타고 가장 큰 환호(데시벨 측정)를 내면 특별 선물을 선사한다.

최근 문을 연 제주 신화테마파크는 ‘무병장수 가래떡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문객 두 사람이 한 조각 되어 가래떡을 최대한 늘리는 이벤트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중앙광장에서 진행한다.

참가자에게 구운 가래떡에 다양한 취향과 입맛대로 준비된 조청, 꿀, 치즈 소스와 콩고물 등이 제공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클릭클릭 지름신... 온라인 쇼핑 싸게파네!

G마켓·11번가·위메프 e쿠폰 등 할인 판매

설 연휴 무엇을 하며 보낼까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온라인쇼핑이 e쿠폰 등 관련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을 벌인다.

G마켓은 ‘설 e쿠폰 선물전’을 열고 연휴 기간에 레스토랑과 뷔페, 영화와 스파, 게임 등의 e쿠폰을 최대 55% 할인 판매한다. 뷔페 토다이

이용권을 기존가 대비 17% 할인가에 선보인다. 스타벅스 등 커피와 디지털 e쿠폰도 특가로 선보이고 도미노피자 등 명절 연휴 인기인 배달음

식 e쿠폰도 할인 판매한다. 영화관람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SK플래닛 11번가도 28일까지 대대적인 행사를 펼친다. 1탄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e쿠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상품권과 메가박스 예매권, GS25 이용권 등으로, 연휴기간

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위메프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선보인다. ‘엄마놀자’ 기획전을 통해 키즈카페부터 공연, 전시, 눈썰매장, 테마파크 등 전국 500여개 가족 여가활동 상품 선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소확행 & 짠들이템... “그웨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

▲MCM ‘세이프 더 러브리스’

▲생활비 달력

▲24시간 타이머 콘센트

황금개띠 아이템으로 소소한 행복 추천
김생민 영향으로 ‘짠들이템’ 각광

2018 무술년 설 명절 소비트렌드로 소확행과 짠들이템이 주목받고 있다.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기능이나 가격보다 감성을 중시하는 트렌드다.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아이템과 일상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자는 취지다.

황금개띠 해를 맞아 뷰티·패션업계는 소확행 트렌드를 반영한 강아지 캐릭터 제품을 내놓고 있다. 친숙한 반려동물이자 충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개를 형상화한 한정판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 라네즈는 반려동물 전문 펫큐 스튜디오와 협업해 강아지 문양이 담긴 ‘립 글로이 밤’을 내놓았다. 바닐라코의 메이크업 브랜드 바바이바닐라는 강아지의 발과 꼬리 모양을 형상화한 ‘펫공이브러쉬’를 선보였다. 강아지의 앞발과 꼬리의 보들보들한 감촉에 착안한 아이템이다.

MCM은 현대미술가 에디 강과 손잡고 강아지 캐릭터가 그려진 컬렉션 ‘세이프

더 러브리스’를 내놓았다. 작가가 유기견을 입양했던 경험에서 모티브를 얻은 디자인으로 사랑·희망·대담함을 상징한다. 이밖에 파파레서피의 ‘개미션 머드 마스크 4종 키트’에는 개의 얼굴에 새의 몸을 가진 독특한 조합의 캐릭터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웨이” 부르는 짠들이템들

과소비에는 “스튜핏”을 절약에는 “그웨이”를 외치는 KBS ‘김생민의 영수증’이 인기를 끌면서 새해 걸심상품으로 절약 아이콘 ‘짠들이템’이 각광 받고 있다.

G9에 따르면 생활비 및 전기세를 절약하는 각종 아이템이 눈길을 끈다. ‘24시간 타이머 콘센트’는 전기절약에 효과가 있어 인기가 높다. 전기 제품의 작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집을 비운 시간에는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에만 전기가 들어오게 설정할 수 있다.

생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활비 달력’도 인기가 높다. 1~31일 날짜가 적힌 주머니로 구성된 벽걸이 달력이다. 하루치 생활비를 31개 주머니에 분배하고, 그것만큼만 쓰는 방식이다. 날짜별로 매일 저축을 하는 저금 달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절수 샤워기’는 물의 세기를 울러 물 절약에 도움을 주며 ‘매직 세탁볼’은 세탁물의 영감을 막아 세제 절약에 효과적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라네즈 모델 김유정이 ‘립 글로이 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아모레퍼시픽